

바벨이 아닌 오순절의 길로

‘바벨이 아닌 오순절의 길’이란 바벨탑처럼 지도자 중심의 유일사상체계를 쌓아 올리는 북한이 변하여 오순절 성령강림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관련 정세 이야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당정 주요 간부들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111주년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오히려 자신의 딸 주애와 여동생 김여정 당부부장과 함께 체육 경기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권 10년이 지난 김정은이 권력 장악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으며, 최근 선대의 통일원칙을 폐기하며 새로운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과의 연관성을 찾는 분석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신격화 강도를 낮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천명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 김정은이 선대의 후광보다는 자신의 업적과 성과를 과시하는 통치 스타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금수산태양궁전(錦繡山太陽宮殿)은 김일성이 생전에 생활하던 금수산의사당(錦繡山議事堂)을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는 목적으로 개조된 공간입니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금수산기념궁전(錦繡山記念宮殿)으로 불렸으며, 2012년 김정일의 70번째 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개칭하였습니다. 김정은의 선대 시신을 보관 중인 건물의 이름이 의사당에서 태양궁전으로 바뀐 것은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북한의 치밀한 우상화 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김정은은 자신의 선대들을 신격화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으므로, 선대보다 오히려 자신을 더 드러내고 내세우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과 오만은 영원히 이어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제목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지도자들이 행하는 신격화와 우상화를 멈춰 주옵소서. 지도자를 숭배하는 북한 동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은 유일사상체계를 끝없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주여, 인간이 높아지는 곳에 강림하셔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이 잘못된 사상에서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남북사랑학교>

남북사랑학교는 탈북 청소년들과 탈북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복음사관학교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아이들이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 학업 공백이 큰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형성해 주고 진학과 진로를 돕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닌 통일세대로 성장하여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① 열방샘교회, 통일소망선교회, 남북사랑네트워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써 탈북 청소년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소서.
- ② 우리 안에 문화적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탈북민과 탈북민 자녀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와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섬기게 하소서.
- ③ 아침 큐티와 성경 과목 수업, 수요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 ④ 탈북민 학부모님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소서.
- 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교회교육이 삼위일체가 됨으로써 남북사랑학교가 기독교대안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강화하게 하소서.

## 말씀 나눔

본문: 창세기 11장 1-9절, 사도행전 2장 1-4절, 11-13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

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창 11:1-9)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행 2:1-4, 11-13)

구약의 바벨 사건(창 11장)은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하나의 '오시범' 모형에 해당합니다. 반면 신약의 오순절 사건(행 2장)은 기독교 공동체 형성의 '정시범'이 되는 모형입니다.

창세기의 바벨 사건에서 인간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11:4)라고 외칩니다. 바벨 사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욕망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욕망에 휩싸이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 욕망은 두려움에 기반합니다.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가진 지도자는 억압적인 힘을 사용하여 군중을 조종합니다. 더 나아가 그 욕망은 정치적·경제적·종교적 제도로 발전하여 중앙집권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체제를 이룹니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본질입니다. 제국주의적 방식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억압의 대상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약소민족과 국가를 점령하여 동화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폭력과 불경건이 작동합니다(렘 50~51장; 계 18장).

시날 평지에 살던 사람들은 한 언어로 말하면서 온 땅에 흠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에는 거짓 영광과 욕망(창 11:4)이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은 '흠어짐'이 두려워 억압적으로라도 '집합'을 추구했습니다. 특별히 바벨은 홍수 심판(창 7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발생하고 비가 아무리 내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체주의적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북한은 6.25 전쟁 중에 미국과 유엔 연합군이 하늘에서 떨어트리는 폭탄으로 여러 도시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시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에 북한은 이를 대의명분으로 삼아 유일사상체계를 구성하고 온 인민을 억압적으로라도 동원하는 '집합' 체제를 생성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들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북한 체제는 획일화되고 중앙집권화되어 중앙으로 모든 힘을 끌어당깁니다. 이는 바벨의 방식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에 내리신 일을 통하여 북한의 운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질화하고 통제하는 바벨식 전체주의를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벨 쌓기를 중단시키십니다. 강림하신 하나님은 바벨탑을 해체하고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한 ‘흩어짐’을 단행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셔서 사람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혼잡하게 된 그들은 결국 흩어졌고 바벨탑 쌓기를 그칩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바벨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마침내 바벨탑 쌓기를 그치도록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북한 정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이 유일사체계를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신약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모형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바로 오순절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줄을 듣는도다”(행 2:11)라고 고백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말이 자신의 언어로 들립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순절의 기적은 사회문화적 이질성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주체가 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공동체가 바벨 공동체에 내려진 심판을 극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 바벨에 내리신 처벌을 무효화하시고 일치를 회복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2:1) 모여 있었으며 흩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듣게 되는,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남북한 사람들은 지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분단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남북한 사람의 정체성은 차이가 매우 커졌습니다. 통일이 되어 같이 살게 되면, 각자의 이질적인 정체성으로 큰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통일의 어려움을 넘어 하나 됨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고, 서로 끌어안으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 신학적 관점

신학자 미로슬로브 볼프(Miroslav Volf)는 바벨(창 11장)과 오순절(행 2장)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의 거짓된 하나 됨을 ‘해체’하시고 오순절 사건 가운데 유익한 조화를 ‘구

축'하십니다.<sup>1)</sup> 하나님은 바벨에 '환원할 수 없는 언어의 다양성'을 부과하심으로써 그들을 해체하십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건축한 이들이 행하던 '식민주의적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입니다.<sup>2)</sup>

한편 볼프는 모든 것을 중앙으로 집중하여 '동질성'을 형성해 하늘을 뚫고자 했던 바벨의 상승운동이 오순절의 하강운동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생명이 각각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워'지도록 비처럼 하늘로부터 '쏟아붓는' 오순절 하강운동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주위를 사방으로 통제하던 중심의 바벨탑은 '각 사람' 위에 내려오심으로써 '모두를 충만하시게 하시는' 성령으로 대체된 것입니다(행 2:3-4).<sup>3)</sup>

성령이 오실 때, 한 언어가 회복되거나 모든 언어를 아우르는 메타-언어가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말이 자신의 언어로 들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sup>4)</sup> 오순절은 '혼란'과 그에 따른 거짓 '홀어짐'을 극복합니다.<sup>5)</sup> 이는 문화적 획일성으로서의 일치(the unity of cultural uniformity)가 아닌 문화적 다양성의 조화(the harmony of cultural diversity)를 이룸으로써 극복됩니다.<sup>6)</sup>

바벨은 중심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며 주변으로부터 기운을 빨아들였던 반면, 성령은 주변으로 기운을 쏟아 작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줌으로써 전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입에 창조적인 예언의 말을 두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십니다.<sup>7)</sup> 오순절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국어로 듣는 경험을 하였습니다.<sup>8)</sup> 오순절의 기적은 사회문화적 이질성 속에서도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주체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sup>9)</sup>

바벨 사건과 오순절 사건 모두 '하나 됨'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자는 이 땅의 방식과 욕망에 근거했고, 후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한반도의 복음통일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깨어진 관계가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랜 분단을 통일로 바꾸는 것은 깨진 관계가 '관계의 이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여된 오순절 하강운동이 우리 한반도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359.

2) 위의 책, 361.

3) 위의 책, 362..

4) 위의 책, 362.

5) 위의 책, 362.

6) 위의 책, 362.

7) 위의 책, 363.

8) 위의 책, 363.

9) 위의 책, 363-364.